

어떤 이가 지도자로 적합한가?

2023년 1월, 체육계는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스타였던 빅토르 안(안현수)의 성남시청 코치 공개 채용 지원 소식으로 들썩였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만 6개인 뛰어난 선수였고 코치 경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거센 비판은 막을 수 없었고, 성남시청은 ‘코치직 합격자 없음’으로 여론을 잠재웠다. 이처럼 선수로써 뛰어남을 증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를 산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떤 이가 스포츠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어떤 덕목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김수빈 기자 honeysu72@naver.com

‘지도’ 자란

어떤 이가 스포츠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선 지도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지도자란 ‘남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스포츠에서 지도자란 선수 혹은 팀을 이끌어 승리·우승이라는 목표로 이끄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항에서 이를 정의하고

있다. 법적으로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뜻한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많이 취득하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이 해당한다.

국가는 이렇게 선발한다

대한체육회에서는 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을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총 감독과 감독은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경력이 5년이 안된다면 체육관련 박사 학위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등 다른 조건이 붙는다. 코치의 경우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경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감독과 코치 모두 국적에 대한 제한은 없다.

국립대인 우리 대학은 어떻게. 전임교원은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5조에 따르면 ‘전문실기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자’에게 임용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실기 조교는 <한국체

육대학교 조교임용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본 대학 육성종목의 훈련 및 실기지도를 보조하는 조교’를 말하고, 제3조에서는 ‘전문실기조교는 경기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담당 부서인 교무처에 따르면, 경기력이 우수함을 증명하는 자료로 경기 실적 증명서를 비롯해 선수 시절 경력,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유무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국가에서는 스포츠 지도자를 선발할 때 크게 ‘선수 시절 경력’,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여부’, ‘관련 학위 유무’, ‘지도자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도자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때문에 선수 경력이 없다면 국가 기관에서 스포츠 지도자 활동을 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선수 경력이 있더라도, 관련 학위가 없다면 코치나 조교 이상의 지도자로 올라서긴 힘들다는 것이다.

능력이 전부가 아니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 팀 2,000m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따자 빅토르 안이 환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앞서 언급한 빅토르 안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게다가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전 종목에서 금메달은 따기까지 한 인재다. 그러나 국민은 그가 성남시청 코치직에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분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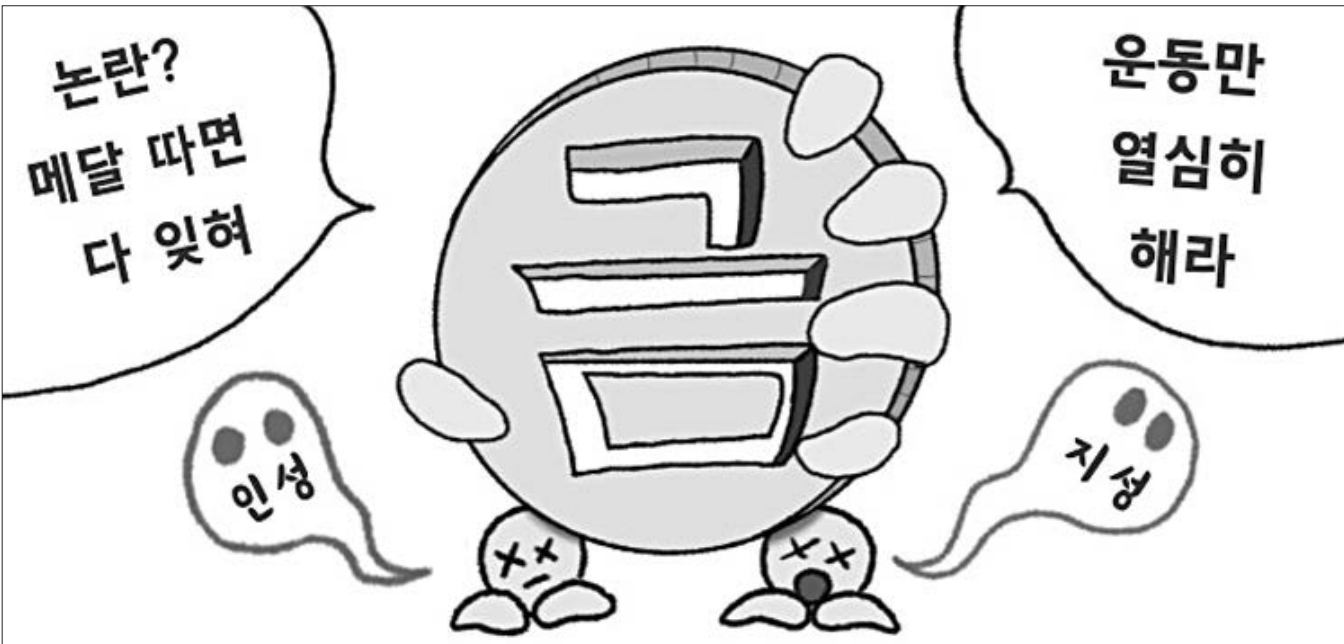
분노의 원인은 그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편과 판정이 일었던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일했던 과거였다. 한국 쇼트트랙의 최대 라이벌인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수석 코치로 부임한 것도 논란이었는데, 당시 판정으로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우리나라의 황대환·이준서 선수가 탈락하고, 중국 선수 2명이 결승에 진출함으로써 불씨에 불을 지핀 것이다. 위와 같은 논란에도 그는 중국이 쇼트트랙 2,000m 혼성계주에서 금메달을 확정 짓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 입장에서 그런 그가 한국에 돌아와 코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즉,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휩쓸고 쇼트트랙 강국에서 수석 코치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면 그의 코치 자격은 충분했으나, ‘도덕적’ 면모에서 그의 능력은 발휘될 수 없었다. 지난 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국내 반증 정서는 고려하지 않았나라

는 질문에 “난 오로지 운동을 잘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가진 선택지 중 최고의 선택지를 고른 것뿐, 다른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 성남시청 빙상부 코치 공개 채용 지원이 논란이 되자 한국빙상지도자연맹에서 반대 성명을 냈다. 그가 러시아로 귀화하기 전, 올림픽 금메달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간 것이 ‘도덕성’ 차원에서 국내 지도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채용이 종료된 이후 빅토르 안의 개인 SNS로 ‘대한민국과 러시아 복수 국적이 인정되는 줄 알았고, 복수 국적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연금은 기부했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나, 성남 민심을 잠재우긴 어려웠다. 성남시청이 ‘최종 합격자 없음’으로 채용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국내 복귀도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그가 택한 선택지는 최고가 아니었다. ‘운동의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의 앞길을 막게 되었기 때문이다. 등한시했던 ‘도덕성’이 그의 능력과 커리어를 마치 없던 일로 만들었다. 도덕적이지 않은 지도자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들, 선수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메달에 깔린 인성과 지성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운동 능력만을 강조하고 있다. 금메달에 짓눌려 선수들의 인성과 지성이 흘러 나간다. 클그림 김수빈 기자

서로를 믿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박채은 학우(하단 가운데)와 함께하는 지도자·팀 선수들 사진 제공: 박채은 학우

그렇다면 선수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지도자는 무엇일지 2월 20일 막을 내린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박건녕(체육 22)·박채은 학우(체육 22)와 인터뷰를 진행했다.(관련 기사 3월호 10면) 쇼트트랙 3,000m에서 금메달, 릴레이 3,000m에서 은메달을 딴 박건녕 학우는 ‘생

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이나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선수를 믿고 기다려주는 지도자인 것 같다. 선수로서 정체가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천천히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다그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답했다.

미흡한 양성 교육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과 ‘남을’ 잘 가르치는 것을 종종 헷갈린다.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선 타인인 ‘남’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선수 출신 지도자들이 ‘자신’이 어떻게 선수로서 성공했는지를 그대로 적용하는 실수를 하곤 한다. 선수가 지도자로 변신을 꾀할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윤숙·김남희·김경숙 교수가 2014년에 발표한 [프로선수출신 농구코치가 학교에서 겪는 당면과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코치는 학생 지도뿐만이 아니라 철

저한 학생 선수 관리와 학교 행정업무 및 그 밖의 다양한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현 시스템은 은퇴 후 학교 운동부 코치를 원하는 선수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조적으로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대부분 새내기 지도자들이 현장에 바로 ‘내던져지는 것’이다.

또한 위 논문의 결론 및 제언에서는 ‘선수 출신 코치들이 체계적인 교육 없이 학교 운동부 코치를 맡게 되었을 때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의 적응 과정, 그리고 직면하게 되

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코치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선수가 지도자란 무엇인지 충분히 공부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가질 교육이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선수들이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도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각종 종목 협회에서 지도자 양성 교육을 진행하곤 있지만, 그것만으론 다양한 환경에 놓여있는 지도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기자생각

과거와 달리 운동선수에게 운동 능력뿐만 아니라 지성과 인성도 요구하는 시대다. 이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지도자가 알지 못해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선수에게 지덕체 모두를 겸비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수를 양성하고, 그 선수들이 지도자가 되는 과정

스승도 지덕체를 겸비해야 한다

을 보면 지성과 인성을 겸비하기 힘든 구조다. 어릴 때부터 운동‘만’ 잘하라는 환경 속에서 자란 것이다. 때문에 운동만 하던 선수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선수 개인의 실력 증진에만 신경 쓰는 일이 허다하다. 혹은 실력만 좋다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선수도 논란이 잠잠해지면 팀의 분위기를 해치더라도 다시 기용하려는 움직임

임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지도자로 변신하려는 이에게 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지성’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선수가 도덕적인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스스로 먼저 ‘인성’을 갖추는 교육과 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다.